



## 거양해운

케이프사이즈 2척 신조발주

벌크선사인 거양해운(대표 박정원)이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2척을 대한조선에 발주했다고 9월 10일 공시했다. 2척의 선가는 총 1,610억3,850만원으로 오는 2009년 8월과 2009년 9월에 인도받을 예정이다.

거양해운은 “이번 케이프사이즈선박의 신조발주는 신조선 확보 및 마켓 운영을 통한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거양해운 고정자산 취득 결정내용] △취득 목적물 : 벌크선 2척 △취득 목적물 규모 : Capesize급 벌크선 △취득가액 : 1,610억3,850만원(자산총액 대비: 48.75%) △거래상대방 : 대한조선 △자본조달방법 : 유보자금 및 외부자금 조달 △취득방법 : 직접취득 △사내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7년 9월3일 △취득예정일 : 1차선 2009년 8월, 2차선 2009년 9월 △기타 : 벌크선 2척 취득금액은 총 1억7,150만달러로 이사회 결의일 외환은행 1회차 고시환율 매매기준율(939.0)로 환산한 금액이며, 환율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변동 가능성 있음.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임.

## 대한해운

대한민국 최고기업대상 수상

대한해운(대표 이진방 회장)은 9월12일 사단법인 한국경영인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후원한 2007년 대한민국 최고기업대상 시상식에서 2005년도에 이어 ‘운수창고 부문’ 대한민국 최고기업 대상을 차지



하였다.

한국경영인협회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세계적 최고기업으로의 성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와 공동개발한 기업평가 모델을 활용, 저명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윤계섭, 서울대 교수)가 최종 심의하여 수상업체를 선정하였다.

대한해운은 1968년 창립 이래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등 국내 주요 화주들과의 장기 해상운송계약으로 국가 기간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국내 최대전용선사로 최근 주력사업인 벌크와 LNG수송 외에 유조선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전문수송선사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해운기업 중의 하나이다.

동사는 2007년도 상반기 매출이 8,387억원, 영업이익이 1,349억원, 그리고 순이익 1,947억원으로 국내 대형선사 중 최고의 영업이익율과 순이익율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최근 계속되는 사상 최고의 벌크 호황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영업전략과 안정적인 대규모 전용선대를 바탕으로 2007년도에는 사상최대의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 상반기에 대형 벌크선 12척, 가스운반선 1척, 유조선 1척 총 7,000억원의 대규모 선박투자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벌크선과 탱커선 위주로 총 26척이나 발주하여 보다 안정적이고도 경쟁력있는 영업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동영해운

### 인천사무소 개설

동영해운(대표 김병래)은 인천지역의 대고객 서비스 제고를 9월17일 인천사무소를 개설,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인천사무소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 3가 1번지 대한통운빌딩 3층(중부경찰서 우측)이다.

△전화 : 032-772-0661/3 △팩스 : 032-772-0664

## 동진상선

### 한중일 펜돌림서비스 개설

동진상선(대표 오용환)이 9월7일부터 한-중-일 펜돌림서비스를 개설했다. 동진상선은 기존의 부산-상하이 노선을 확대해 한국과 중국, 일본 하카타를 잇는 3국간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 기항지는 부산(금)-울산(토)-닝보(월)-상하이(화)-하카다(목)-부산(목)순이다. 서비스 선박은 기존 부산-상하이 노선을 운항했던 586TEU급 컨테이너선 '브라이트데이(BRIGHT DAY)' 호가 계속 이어간다.

동진상선 관계자는 "기존 부산발 상하이 노선을 연장해 최근 늘고 있는 상하이, 닝보 기점의 중국

화동지역 화물을 공략하고 이 지역 수출입 하주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진상선은 9월1일부로 직원들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과장 : 서울사무소 서명옥 △대리 : 해사부 조일안, 서울사무소 강현애, 김영미, 이희정, 기획관리실 이수진

## KSS해운

### 케미컬탱커 2척 도입추진

KSS해운(대표 윤장희)이 상장을 통해 얻어진 자금을 활용하여 3,850DWT 케미컬탱커 1척을 신조하고 6,500DWT 케미컬탱커 1척도 도입할 계획이다.

KSS해운은 지난 7월27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10월17일~18일 주식공모 후 상장하게 된다.

총공모주식수는 17만3,894주로, 이중 우리사주조합에 총공모주식수의 20%인 3만4,779주가 우선배정되고 나머지 주식 13만9,115주가 일반 공모된다. 이중 10만4,336주는 기관투자자에게, 그리고 일반청약자에게는 3만4,779주가 공모된다. 일반청약자는 우리투자증권(주) 본·지점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주당 공모가액은 6만원으로 KSS해운은 주식공모를 통해 약 104억3,364만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며 이중 94억9,800만원을 케미컬탱커 2척을 취득하는데 쓸 계획이다.

3,850DWT의 케미컬탱커는 일본에서 신조하는 방식으로 취득할 계획이고 6,500DWT 케미컬탱커는 중고시장에서 약 5년정도의 선령을 가진



선박을 확보할 예정이다.

KSS해운은 “석유화학제품의 수입지인 중국, 인도와 수출지인 일본, 중동지역이라는 물동량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시장이 향후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메카로서 호황기를 유지할 것을 감안해 석유화학제품을 37년째 운송한 탁월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운송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물동량을 확보하고 소형 케미컬 운반선 위주에서 중대형 케미컬 운반선으로 선박 확충 및 영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KSS해운은 이미 발주한 8,500DWT 규모의 신규 케미컬탱커가 오는 2009년 12월에 인도받게 되고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 케미컬탱커 2척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향후 케미컬 운송사업 부문에 있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SK해운

### 영국 현지법 외화채권 발행



SK해운(대표 이정화) 영국 현지법인이 국내 최초로 외화 채권을 국내에서 발행해 미화 5,000만 달러를 확보했으며 운전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SK해운이 100% 투자해 설립한 영국현지법인인 SK Shipping Europe PLC는 산업은행을 통해 미화 5,000만달러 규모의 외화변동금리채권(FRN : 일명 김치본드)을 공모를 통해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치본드는 3년 만기의 발행조건으로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에서는 모두 ‘BBB+’의 신용등급을 받았다.

SK Shipping Europe은 SK해운의 글로벌 전략실행의 핵심거점 중 하나로서 세계 해운과 금융의 중심지인 영국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여 왔으며, 현재 전 세계 수위의 대형 벌크선 운항선사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유럽내에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자 최근 영업확충에 박차를 가해 왔다.

SK해운의 한 관계자는 “영국현지법인의 글로벌 경영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차원에서 이번 김치본드를 발행하게 되었다”며, “본 건은 우리 기업의 해외법인이 본사의 보증없이 국내에서 공모로 발행한 첫 사례라는 점과, 이를 통해 해외현지법인의 독자적인 자금조달원 확충에 성공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SK해운이 자원수송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해운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해운은 동 김치본드발행과 관련 9월1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SK해운 이정화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은행과 김치본드 발행 서명식을 가졌다.

최봉식 산은 발행시장실장은 “이번 김치본드 발행은 국내 채권시장을 통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전략지원이라는 의미외에도 외국기업에 대한 채권발행 주선과 외화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수단의 제공 등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산은은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뿐만 아니라 순수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김치본드와 아리랑본드의 발행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우리금융시장이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도약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 STX팬오션

한국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이 9월21일 한국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했다. 이 회사는 13~14일 3억 4300만 주(액면가 100원, 총 발행주식 수의 20%)를 주당 1720원에 공모주 청약해 5901억원을 조달했다.

2005년 싱가포르 증권시장에 직상장한 STX팬오션은 국내 상장으로 한국 기업 최초로 양 시장



에 원주를 동시에 상장한 회사가 됐다. 이종철(사진) 사장은 기념사에서 “투명 경영 실현과 함께 글로벌 기업으로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STX팬오션(대표 이종철)이 중국-인도간 정기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한다.

CSI(China Straits India)로 명명된 동 서비스는 STX팬오션과 양명, 에버그린, TS라인, 사무테라가 각 1500TEU급 컨테이너선박 1척씩 총 5척을 투입해 오는 10월 중순경부터 주 1항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CSI는 10월 15일 상해를 시작으로 닝보, 홍콩, 싱가포르, 콜롬보, 나바샤바, 싱가포르, 파시르구당, 람차방, 홍콩, 상해를 운항하게 되며 35일이 소요된다.

STX팬오션은 세계 유수의 선사들과 함께 중국-인도 서비스를 공동개설함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지역에서의 마켓 점유율 신장 및 기존 서비스간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천경해운

한-중-일 팬들럼서비스

천경해운(대표 김지수)은 STX팬오션(대표 이종철)과 함께 근해항로 컨테이너 운송의 경쟁력 향상 및 대하주 서비스 제고를 위해 9월26일부터 한국과 일본, 중국을 연결하는 한-중-일 팬들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STX 팬오션과 1,000TEU급 선박을 1척씩 투입하여, 부산(수) - 울산(수) - 광양(목) - 신강(토) - 대련(월) - 부산(수) - 니이가타(금) - 나오에츠(토) - 토야마(일) - 부산(수) 스케줄로 운



항하게 되며, 한-일 구간에서는 주 2-3항차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천경해운은 “이번 한중일 팬들림 서비스를 통해 중국 신강, 대련항과 일본 3개 항만을 잇는 직항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본 항로를 이용하는 하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운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창명해운

### 대규모 선대 신조발주

창명해운(대표 이경재)이 최근 국내외 조선소에 3억5500만달러 규모의 선박 9척을 신조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명해운은 대한조선에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1척, 오리엔트조선에 3만3,000DWT급 로그선 4척, 중국 쟁허조선(Zhenghe Shipyard)에 3만3,000DWT급 핸디사이즈 벌크선 4척 등 총 9척, 3억5,500만달러 규모의 선박을 발주했다.

창명해운이 대한조선에 발주한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은 17만6,000DWT급으로 납기가 2008년 9월로 선가는 9,500만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리엔트조선에 발주한 3만3,000DWT급 로그선 4척은 2009년에 2척, 2010년에 2척이 인도될 예정이 au, 쟁허조선에 발주한 3만3,000DWT급 핸디사이즈 벌크선 4척은 오는 2009년 중반에 첫 호선이 인도되고 이후 3개월 간격으로 3척이 인도될 예정이다.

창명해운은 이미 쟁허조선에 지난 5월께 5만7,000DWT급 수프라막스 벌크 4척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인도받는 조건으로 신조 발주한 바 있다.

## 태영상선

### 벌크선 2척 신조발주

태영상선(대표 박영안)은 최근 벌크선 2척을 신조발주했다.

최근 6,000DWT급 보유 선대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영업력 및 시장위상 제고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태영상선(대표 박영안)이 지난 9월10일 6,150DWT급 벌크선 2척을 중국 난징 우시조선소에 신조발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신조발주는 지난 5월 인도받아 운항을 개시한 'TY EVER' 호에 이은 동급선형 4, 5차선으로, 전장은 99.3미터이고, 선폭은 17미터, 선심 8.5미터이며, 속력은 12.1노트이다. 납기는 각각 2009년 5월, 2009년 10월이다.

한편, 태영상선은 국내 육상직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9월 1일, 2일 양일간 경기도 청평 마이더스 리조트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기업환경 변화와 리더의 역할', '효율적 관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리더십 개발' 및 '아웃도어 프로그램인' 등의 SECTION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상호토론식으로 진행된 이번 리더십 향상 교육은 신문지 탐 쌓기, 블라인드 앤 블라인드 등 이채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생들의 열정적인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한 태영상선 관계자는 “리더십이 학습과 훈련에 의해 고양될 수 있음을 알게 됐을 뿐 아니라, 임직원간의 진솔한 커뮤니케이션과 다양한 체험 학습의 기회를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리더십의 실천 경험을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태영상선은 올해부터 승선교육, IT교육, 마켓

팅교육, 리더십교육 등 4단계 교육제도를 시행하여 임직원들의 신지식 습득과 자기역량 강화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 팬스타라인닷컴

내년부터 남해안 크루즈 서비스



팬스타라인닷컴(대표 김현겸 회장)이 남해안의 천혜 해양관광 자원과 부산의 해운대, 광안리, 태종대 등을 연계하는 남해안 순항 크루즈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팬스타라인닷컴은 9월20일 남해안 순항 크루즈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부산시청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 도입과 크루즈 터미널 설치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부산시와 체결했다.

부산시는 이번에 추진되는 남해안 순항 크루즈 사업은 주 5일 근무제의 정착과 국민 소득의 증가에 힘입어 크루즈 이용객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유망 성장 관광 상품으로 해양관광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해안을 운항하는 크루즈와 부산 내륙의 다른 관광상품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경우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항이 크루즈 허브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남해안 순항 크루즈 운항을 위해 팬스타의 국내선 크루즈 터미널 설치를 위한 부지 알선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팬스타라인닷컴은 1만톤급 선박을 도입해 10월초부터 3개월간의 수리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남해안 순항 크루즈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동 선박은 700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연회장과 수영장 등을 구비하고 있다.

팬스타는 남해안 운항을 기본으로 하되 용호만 매립지 신설부두를 모항으로 하여 부산~완도, 부산~완도~제주 등을 2박 3일 또는 3박 4일 상품을 개발해 선보임은 물론 계절에 따라 기항지를 변경해 여행객에게 국내 관광지의 아름다움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남해안 순항 크루즈 서비스에는 이 같은 기항지 관광뿐만 아니라 선내에서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서비스할 방침이다.

## 한진해운

GRI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한진해운(대표 박정원/www.hanjin.com)이 국내 해운업계 최초로 회사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제반 활동 및 향후 계획 등을 종합한 '2006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경영성과를 비롯하여 △윤리/투명경영 △상생경영/사회공헌 △환경보호



활동 및 △고객에 대한 의무와 책임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기본적인 기능을 넘어서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한진해운의 노력을 포함함으로써, 지역 및 글로벌 사회와 함께 공존, 발전해 나간다는 선언적 표시로 기업 이미지 및 대외 신뢰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진해운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다양한 정책과 성과를 고객, 주주 및 지역사회 등 제반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동사의 확고한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발간에 대해 한진해운 박정원 사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속에서 ‘지속 가능경영’은 이제 모든 기업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하고, “그 동안 한진해운은 ‘투명경영, 사회공헌, 환경보호경영’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경제에 기여하여 왔으며, 급변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한진해운이 사회와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글로벌 일류 종합물류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진해운은 앞으로도 매년 혹은 격년으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여 고객, 주주 및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GRI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머리글자를 판것으로서 세리즈원칙을 제정한 미국의 NGO(국제비정부기구)인 세리즈(CERES; 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 환경에 책임을 지는 경제를 위한 연합)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이 중심이 되어 1997년 설립한 기구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해 있다.

GRI의 참가자는 세계 각국의 기업, NGO, 컨설턴트, 회계사단체, 사업자단체 등으로, 환경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지속가능보고서는 화주,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 뿐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위험과 기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과 성과를 담은 보고서이다.



## 현대상선

### 동유럽 공략에 박차

현대상선(대표 노정익, [www.hmm21.com](http://www.hmm21.com))이 최근 급성장하는 동유럽 지역의 수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륙물류 서비스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현대상선은 최근 독일 함부르크(Hamburg)와 폴란드 므와바(Mlawa)를 잇는 '직통 컨테이너 화물 전용수송열차 서비스(Express Rail Service)'를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폴란드로 수출되는 화물은 선박으로 함부르크까지 운송된 후 전용수송열차로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이번 전용열차 서비스 개시로 △부산에서 므와바까지 기준으로 종전에는 수송시간이 총 36일 소요되던 것을 28일로 일주일 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되어 화주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시 수송체계를 구축하여 폴란드 내에 입주한 한국기업 등 주요 화주들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폴란드 므와바에 위치한 LG전자 현지공장의 물류 시스템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현대상선 측은 설명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이번 전용열차 서비스 개통으로 동유럽 지역, 특히 최근 폴란드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난해 개통한 로테르담(Rotterdam)과 슬로바키아(Slovakia)간 전용열차에 이어 이번에 함부르크(Hamburg)와 폴란드간 전용열차를 개설함으로써 아시아에서 동유럽까지 더욱 저렴하고 빠르게 화물을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2005년 9월부터 아시아와 네덜란드 로테르담(Rotterdam)항과 슬로바키아(Slovakia)의 갈란타(Galanta) 간에 직통 컨테이너 화물전용 수송열차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번 폴란드 지역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앞으로도 신흥시장으로 주목받는 동유럽 내륙물류 서비스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상선은 미국의 물류 전문지로부터 7년 연속 서비스 우수성을 공인받았다.

현대상선은 미국의 저명한 물류 전문지인 '로지스틱스 매니지먼트(Logistics Management)'가 매년 평가하여 발표하는 'Quest for Quality Awards'에서 7년 연속「최고의 수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선사」로 선정되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로지스틱스 매니지먼트'가 최근 6,000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송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정시성(On-Time Performance) △서비스 품질(Value) △IT 시스템(Information Technology) △고객 관리(Customer Service) △장비 및 운영(Equipment & Operations) 등 서비스 전반에 걸친 평가항목에서 현대상선이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 선사로 뽑혔다는 것이다.

'로지스틱스 매니지먼트'는 물류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하는 월간지로 매년 물류 각 부문에서 업체별 서비스 품질을 심사하여 'Quest for Quality Awards'라는 이름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24번째를 맞는 올해 조사에서는 전 세계 120여 개의 해운·물류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16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현대상선은 그 중에서도 7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은 것이다.

## 목포해양대학교

대학본부 신축 건물로 이전

목포해양대학교(총장 신철호)는 9월5일과 6일 대학본부를 신축 건물로 이전하였다.

신축 대학본부는 건물 연면적 5,656㎡(1,714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66억 8천여만원





의 예산이 투입되어 건축되었으며, 개청식은 10월 9일 가질 예정이다.

각 층별 현황으로는 지하층에 전기실, 기계실, 사위실이 있으며 1층에는 총무과와 학생과와 취업실습과, 2층에는 총장실과 교무과, 기획실이 있으며 3층에는 전자계산소와 전산실습실, 산학협력단이 배치 되었으며, 4층에는 어학실과 어학강의실, 5층에는 회의실과 전시실이 배치되어 있다.

한편, 목포해양대학교는 전국 122개 대학이 참여한 '2007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에서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 종합순위 전국 11위를 차지하며 광주·전남지역 권역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그동안 교육 및 연구 활성화와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수요자 중심의 현장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실습참여 학생비율(전국 1위), 교육비 환원율(전국 4위), 기숙사 수용율(전국 5위)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올해로 14년째를 맞는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종합평가와 학문분야 평가로 나눠 6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종합평가 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지난해까지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은

신설대와 산업대, 교육대, 종교대를 제외한 122개 대학(국.공립 24개, 사립 98개)이었다.

## 인천항만공사

### 혼합 폐기물 분리처리 예산절감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서정호)가 2007년도 사내 우수 혁신사례로 '혼합 폐기물 분리 처리로 환경 보전 및 예산 절감' 사례를 선정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혁신사례를 통해 무려 41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된 '혼합 폐기물 분리 처리' 공법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실시된 BP(Best Practice, 경영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출품되기도 했다.

건설본부 건설팀이 추진했던 '혼합폐기물 분리 처리'는 인천항 남항 아암물류단지(제2투기장)에 컨테이너 장치장을 조성하면서 시도된 새로운 공법이다. 이 컨테이너 장치장 부지는 이전까지 원목 야적장으로 사용되던 곳이라 지표면에 골재와 나무껍질 등이 혼합돼 있는 상태였다.

당초 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골재가 포함된 수피 등 지표면을 걷어내 폐기 처분할 예정이었으나, 공사를 진행했던 윤성태 당시 건설팀 대리가 골재와 나무껍질의 분리재활용 가능성을 눈여겨보면서 새로운 혁신사례가 탄생하게 됐다.

윤 대리는 골재에서 분리된 나무껍질의 재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 이 수피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토양개량제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골재와 섞여 쓰레기장으로 향할 뻔 했던 나무껍질은 분리 처리 공정 후 공개매각 절차를 팔리는 귀한 몸이 되고 말았다. 인천항만공사는



해당 부지에서 수거한 총 6,750톤의 폐기물 처리 비용 5억8천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같은 공법은 현재 아암물류단지 입주를 위해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인 여러 업체 전체로 전파되면서 해당 부지에서 발생 예정인 4만톤 가량의 폐기물 처리 비용 41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이외에도 '갑문 10만시간 무재해 달성'을 또 다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한편 장려작으로 선정된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한 3S 혁신 추진 사례'를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해양수산부 혁신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했다.

## 케이엘넷

### 로지스빌 이용료 인하

물류IT전문기업 주식회사 케이엘넷(www.klnet.co.kr, 대표 : 박정천)은 9월12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로지스빌(LogisBill)의 이용료를 이용실적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케이엘넷의 로지스빌은 기존의 인편이나 우편으로 전달하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국세청 고시 제2001-4호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을 EDI

를 통해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설계된 전자세금계산서 자동화 서비스로서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국가공인인증 1호이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관리 이외에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의 발급 문서를 전자문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한 후 전자적으로 발행·승인·취소·인쇄·결제 등의 다양한 기능을 구현해 업무효율화 제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가입고객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번 로지스빌 이용료 인하와 관련 케이엘넷의 박정천 대표이사는 “현재 로지스빌 이용고객은 LG전자, 범한판토스, 고려해운, 장금상선, 부산허치슨터미널, PECT를 비롯해 2천여 업체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에는 해운물류업계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로지스빌의 이용료 인하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인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케이엘넷의 로지스빌 이용료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로 구분되고 건당 전자세금계산서 220원, 거래명세서 120원으로 이용건수에 따라 서비스료가 부과되었으나, 9월 사용분 부터는 이용건수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할인해 준다.

한편, 케이엘넷의 로지스빌을 이용하려면 로지스빌 서비스 사이트(www.logisbill.com)에 접속하고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 평택항만공사

### 중국 칭다오시 부시장 등 접견

중국 칭다오시 후샤오쥘 부시장을 포함 12명으

로 구성된 방문단 일행이 9월20일 평택항 홍보관을 방문해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성장해가는 평택항의 개발 및 발전현황을 살펴보았다.

방문단에는 마더량 산동성 교통청 항항국 처장, 정밍후이 칭다오시 교통위원회 주임, 왕즈권 칭다오시 항항관리국 국장, 청도강평국제물류유한공사 리지안귀 사장 등 시 주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방문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날 후샤오권 부시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평택시청을 방문, 송명호 시장에게 “평택-청도간 카페리 개설에 평택시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어 한영구 부시장과 후샤오권 부시장이 평택항-청도항간 신규 항로개설의 우선 추진과 항만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회담 요약서에 서명했다.

칭다오시는 평택시와 1999년 우호교류와 경제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합의를 했으며 산둥반도 동단 서쪽에 위치해 있다. 서해를 경계로 평택시와 마주하고 있는 도시로 연간 화물취급량이 7,300만톤에 이르는 중국의 4대항만 중 하나다.

## 한국복합운송협회

### 제1기 국제물류전문가과정 개설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김인환)는 오는 10월15일부터 19일까지 제1기 국제물류전문가 과정을 실시한다. 업계 종사자들의 물류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SCM혁신전략(한국EXE컨설팅 권대욱부장) △물류센터의 운영혁신(CJ물류연구소 임춘우 박사) △3PL사업 전개방향(한솔CSN 최근상 팀장) △SCM의 위험관리와 글로벌 소싱(인천대학교 홍석진 교수) △글로벌로지스틱스 트렌드 및 혁신(A.T. Kearney 조상욱 부사장) 등의 커리큘럼으로 이

루어져있다.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교육신청서(교육비 송금 포함) 및 훈련위탁계약서를 협회(Fax 733-0700)로 보내면 된다.

## 한국조선협회

### 제4회 조선의 날 행사



한국조선협회는 9월13일 COEX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 및 박규원 한국조선협회장 등 조선산업계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조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중공업(주) 배석용 부사장이 세계 최초로 플로팅 도크를 이용하고 메가블록 공법을 개발한 공로로 산업훈장을 수상하였으며, 대선조선(주) 안재용 전무가 산업포장을, 현대중공업(주) 서덕원 부장이 대통령표창을, STX조선(주) 차상선 상무와 (주)한진중공업 이연동 과장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밖에도 국내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현대중공업(주) 이태범 부장 등 8명이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음.

이날 행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념식 치사를 통해, 우리 조선업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세

계 1위 산업의 위상을 지켜온 것에 대해 그간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온 조선 산업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조선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선점해감으로써 세계 1위 산업의 위상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축하리셉션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2003년부터 4년 동안 선박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측면에서 세계1위를 유지해 올 정도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향후 크루즈선과 같은 고부가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LNG 저장탱크기술과 같은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조선협회 한종협 상무가 “세계 신조선 수급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것을 비롯하여 조선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대응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와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는 2010년 교사 이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박찬조)은 9월18일 동삼동 혁신지구로 교사를 이전하기 위한 첫 삽



을 떴다. 이로써 용당동에 위치하여 해양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2010년 동삼동 시대를 준비하게 됐다.

연수원 신축교사는 66,708㎡(20,179평) 규모로 2010년 7월말 완공이 계획되어 있으며, 연약지반 공사는 (주)에서건설에서 실시한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교사신축으로 △교육시너지 효과 제고 및 교육투자 제정절약 △고객 편의성 제고로 교육복지 실현 △국제기준에 맞는 교육실시로 경쟁력 있는 해기사 양성 △국제협약의 요건 충족으로 White List 배제 방지 해운수신환경에 부응하는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기반 구축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방제실무 향상을 위한 워크샵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이용우)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에 걸쳐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양수산인력개발원에서 ‘제6회 방제실무 향상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에는 조합 임직원 등 총 72명이 참석,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오염사고시의 방제비용징수, 방제조치사례 및 연구과제 결과 발표를 통하여 향후 개선방안과 이의 실행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주요 발표 및 토의사항은 △2007년도 주요 방제비용징수 사례 3건(인천지부 외 2) △방제조치 사례(제주지부) △청방선을 이용한 수중침적폐기물 수거활성화 방안(포항지부) △해상유출유 초기 확산예측방법(마산지부) △침몰선(유일호, 오성호) 잔존유 회수 사례를 통한 향후 침몰선 잔존유 회수 시스템 개선 방안(포항지부) △기름오염



자갈 자동세척기연구 개발 사례(여수지부)등의 주제발표 및 △ 방제대응시간단축방안 △유출유 회수율 증대 방안 △방제대응 태세 점검 개선 보완 사항 등의 분임토의를 실시하였다.

특히,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 이승환 HNS 관리계장은 “OPRC- HNS 협약수용 방안 및 향후 HNS 방제 대책” 특별강연을 통하여, 방제조합이 국내외 해양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주문하였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출범에 앞서 실시한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방제조치를 하면서 미흡했던 분야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조합설립 후 지난10년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워크숍을 통하여 상호 정보교류 및 개선방안 도출로 오염사고시 향상된 방제조치를 실시하여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한국해운조합

### 제17대 정유섭 이사장 취임

한국해운조합 제17대 정유섭 이사장의 취임식이 9월 19일 오전 11시 해운조합 대회의실에서 회장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정유섭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연안해운 산업 발

전에 필요한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으로써 연안해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여객선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높여 여객선 이용객 1,500만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 개개인을 전문성과 도덕성으로 재무장키고, 비전 및 실천전략을 새롭게 마련하여 해운조합을 보다 더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합원, 임직원들에게 연안해운과 조합 발전이 내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연안해운의 탄탄한 발전과 조합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9월 4일 개최된 제4회 임시총회에서 선임됐으며 9월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행정고시 22회인 정 이사장은 1981년 총무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82년 여수지방해운항만청 총무과장으로 바다 행정 및 해운물류 분야에 주로 종사한 이래 25년간 해운항만청과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였으며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과장,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장,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거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역임했다.

또한 IMO(국제해사기구) 산하 국제해사대학(스웨덴) 유학 후 UN산하 ILO(국제노동기구, 제네바)와 주미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등 해운물류 및 국제적인 식견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를 받아 왔다. 저서로는 정과장의 제네바통신(1997년, 청년사)과 마이클디버의 “미국을 연주한 드러머 레이건” 번역(2005년, 열린책들) 등이 있다.

